

“금리 오르는데 내 코인은 추락”… 암호화폐 빛투족 ‘곡소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하락장
미국,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한은, 추가인상 시사… 이자부담 ↑

암호화폐에 ‘빛투’(빛내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기준 1.0%에서 1.25%로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역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불었던 코인 열풍은 현재 잠잠해진 상태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8200만원대(지난해 11월)보다 약 37% 하락한 상태다. 지난 11일에는 장중 490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최근 커진 이유는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은행들의 기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암호화폐 빛투족들의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유토이미지

리 인상 영향이 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0.5%에서 1.25%로 0.75%p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3월(1.25%)과 똑같은 수치다.

이에 ‘빛투족’들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니 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대출 고객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16만 1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등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 상승분이 총

48만4000원이다.

또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빛투족’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만약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이 1.50~2.0%로 예상하면 ‘빛투족’의 이자는 최대 50만원 가까이 증가가 예상돼 지난 3차례 인상까지 더해 연간 약 100만원의 이자가 불어난다.

또한 미국 역시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올해 기준금리 인상 뜻을 밝혔다.

당초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점진적 금리인상 시기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빛투족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들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몇 년간 상승한 데 따른 차익실현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크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상승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며 “금리인상 기에 암호화폐가 상승하기는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작년 경제성장률 8.1%… 경기 급랭 본격화

차이나 뉴스&리포트

4분기 4.0%, 전망치 웃돌았지만 1년 반 만에 최저치… 둔화 가시화 올해 전망치 4.3%로 하향 조정

중국의 경기 냉각이 본격화됐다.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8.1%로 8%대를 지켰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은 ‘쇼크’ 수준이라면 3분기보다 더 낮아졌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0%로 집계됐다. 기준 전망치 3.6%는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컸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기저효과로 18.3%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 등으로 경기 둔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연간 GDP 증가율은 8.1%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2%까지만 기

저효과 등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연평균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5.1%까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9%대에서 2012~2015년 7%대로 내려왔고, 2016년~2019년에 유지했던 6%대마저 깨진 셈이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게 했지만 반대로 반복된 봉쇄와 비용은 부담이 돼 돌아오고 있다. 부동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 외부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을 빠르게 약화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안 페너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경제 성장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소매 판매 수치는 여전히 코로나 제로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며, 회복 기미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의 경우 특히 작년 12월에 눈에

띄게 부진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전국에서 통제를 크게 강화한 탓이다. 인구 1300만의 도시 시안은 전면 봉쇄된 상황이다.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헝다 사태로 시작된 주택 시장의 위기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둔화 움직임에 경기부양 방안도 발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정책 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0.10%포인트 인하했고, 오는 20일 대출우대금(LPR) 추가 인하도 예고했다. 기준 금리 인하는 2년여 만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급 준비율과 LPR를 한 차례씩 내린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루이비통, 내년 3월까지 국내 시내면세점 매장 철수
루이비통이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시내면세점 매장을 모두 닫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면세전문 매체 ‘무디 데이빗 리포트’는 루이비통이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시내면세점 매장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루이비통 매장.

/뉴스

외식업계 “하반기 제2 IMF 사태 우려”

1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서 계속

개인파산은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없애는 제도다.

실제로 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9년 개인파산자는 4만5642명으로 전년(4만3402명) 대비 5.1% 증가한 뒤 다음해인 2020년 5만37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개인파산자는 4만4892명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으로 대출 상환을 미뤄오다 오는 3월 만기시점에 맞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폐업하게 되면 받았던 대출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한다. 유예조치

로 벼티다 3월 이후 상환부담을 못 이겨 폐업,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종료를 통해 부실을 확인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개인대출로 전환시켜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상환부담이 적지 않아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폐업 시 연착륙방안과 모든 빚을 모두 탕감받는 파산방식 외 다른 채무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제2의 IMF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폐업 시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안 말고도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레미콘, 지난달 이어 추가 인상 전망

1면 ‘시설중단, 제조원가 ↑’서 계속

시멘트업계에서 쓰고 있는 유연탄 종류는 6500kcal/kg다.

특히 업계 전체적으로 유연탄 연간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 시장가격으로 유연탄을 구입해야 해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탄값 급등 등의 여파로 업계

전체적으로 올해 시멘트 제조원가가 최소 7000억원에서 8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멘트사들은 연초부터 시멘트 가격을 17~19% 정도 인상을 했거나 예고한 상태다.

밸트 시멘트 기준으로 t당 출하가격을 쌍용C&E 9만3000원, 한라시멘트 9만2600원, 성신양회 9만2500원, 삼표시멘트 9만4000원 등으로 각각 올렸다.

한일시멘트도 오는 2월7일 출하분부터 9만2200원으로 인상키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17% 오른 액수다.

시멘트값이 t당 10만원에 더욱 바짝 다가선 셈이다.

이같은 시멘트값 상승 여파로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레미콘사들은 지난해 12월에 건설업계와 협의해 레미콘 단가를 4% 가까이 올린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